

'96 동남아시아 전자공업의 동향조사 보고서(Ⅲ)

조 사 부

각국별동향

1. 미얀마
2. 필리핀
3. 말레이시아
4. 싱가포르
5. 인도네시아

1. 미얀마

가. 국가의 일반 개요 - 자원이 풍부한 농업국

(1) 국토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대륙부 가운데서는 최대의 국토(일본의 1.8배)를 갖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과 수자원, 천연가스, 석유, 금속, 보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본고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부품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12월까지 한국, 대만, 홍콩 등 10지역에 동남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국의 기기업체 정부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본회에서 번역 게재한 것임.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국토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이라와지강, 싯탄강, 살윙강에 의해 형성된 광대한 경작지를 갖고 있으며, 뱅갈만에 면한 총연장 2,832km의 지역이 미개발 상태이고, 어업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해안선도 갖고 있다.

(2) 민족

인구는 약 4,720만명으로, 버르마족 64%, 카렌족 9%, 샴족 9%, 카칭족 3%, 기타 15%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을 합하면 135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약 90%가 불교도이다. 공용어는 미얀마어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도 상당히 통한다.

(3) 역사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60년대 초까지는 아시아에서도 유수의 번영을 구가해 왔으나, 62년 네원정권이 성립된 후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주요경제분야의 국유화와 쇄국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생활활동의 침체, 고용의 감소, 극도의 물자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파탄하여, 87년에는 UN에 의해 후발개도국(LLDC)의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26년간 계속된 「버마식 사회주의」의 2당 지배와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만이 「민주화 요구」운동으로 폭발하여 국내가 혼란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88년 9월 군사구태타가 발생하여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 SLORC」정권을 장악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90년 총선거에서는 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군사정권은 이양에 응하지 않고 있다.

92년부터 SLORC의장에 탕슈에 상급대장이 취임하여, 일련의 민주화 조치와 개방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해 미얀마의 폐쇄강이 일소되어 국제사회에서 고립일로를 걷고 있던 내정과 외교적인 환경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여러 정치적 문제를 안고는 있으나, 국내적·대외적인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신흥시장으로써의 매력을 무기로 베트남, 인도에 이어 투자대상국으로써 주목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표 4〉 일반경제지표

	94년	95년	96년
인 구 (만 인)	4,392	4,620	(4,720)
1 인 당 GDP (\$)	(750)	(800)	(890)
경 제 성 장 륜 (%)	(6.8)	(9.7)	(7.7)
물 가 상 승 율 (%)	(22.4)	(22.0)	(21.8)
환 율 (대 \$)	(90)	(100)	(115)

주 : 미얀마는 이중통화이기 때문에 상기통계는 참고치.

나. 경제개황

— 경제는 밝아지기는 시작하였으나 2자리 인플레이 계속

(1) 경제성장

92년의 군정 Top의 교대와 그 신체제에 의한 생산·유통의 자유화 그리고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에 의해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경제성장율은 94년보다 6% 이상을 달성하였고, 96년에도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어 7.7%의 성장이 예상된다.

미얀마의 성장율은 GDP의 55%를 점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2) 인플레이

'88년의 농산물 유통자유화 이래 현재까지 2자리의 인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93년도 33.6%, 94년도 22.4%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으며, 미국 정부에서는 93년이 39%, 94년이 38%로 추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의 원인으로서는 농산물

의 자유판매제도, 일용품을 포함한 제조업의 생산능력부족, 국경 무역의 확대에 의한 주변제국으로부터의 제품유입, 통제경제의 잔재인 공정가격과 암거래가격의 존재 등을 들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재정의 대폭적자에 의한 Money Supply의 대폭적인 증가라고 생각된다.

(3)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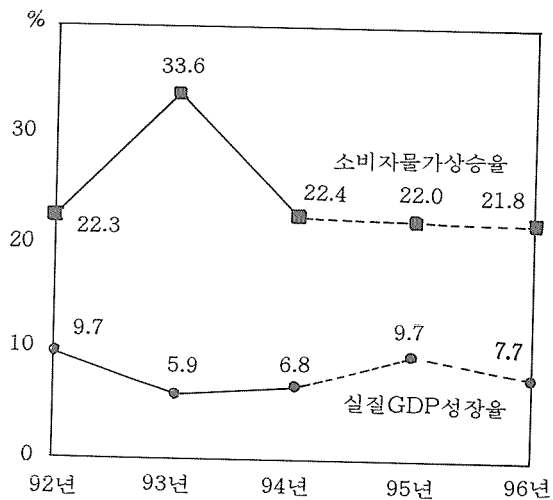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농림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신장보다 소비재(식품)·중간재의 수입이 급

증한 결과, 대폭의 적자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행자가 떨어뜨리는 외화수입과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외국투자 등에 의한 자금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화준비고에 관해서는 3억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채무잔고는 군사정권이후 일본 및 구미선진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정지되어 93년에는 55억불(년간 수출액의 6~7배 수준)에나 이르러 심각한 상태이다.

다. 산업의 동향

그림 1



(표 2) 94년도의 부문별 GDP(구성비) 및 부문별취업인구

부 문	GDP	취업인구	
		인구	비율
농업	54.8%	11,115천인	64.5%
농수산물	6.9%	388천인	2.2%
임업	1.0%	186천인	1.1%
광업	0.5%	105천인	0.6%
제조업	6.9%	1,410천인	8.2%
전력	0.3%	18천인	0.1%
건설	1.7%	327천인	1.9%
운수·통신	1.7%	431천인	2.5%
사회·행정기타	2.3%	1,287천인	7.5%
소매기타	1.7%	300천인	1.7%
상업(무역)	22.3%	1,663천인	9.7%
합계	100.0%	17,230천인	100.0%

주: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표 3) 93년도 제조부문 업종별 쉐어

식품가공	85.3%
광업원자료	3.0%
건설자재	3.0%
석유제품	2.5%
의료품	1.9%
잡화	1.1%
전기제품	0.6%

(표 4) 外國投資의 業鍾別·認可狀況(累積)

업종	건수	95년 5월 현재 (단위: 백만불)	
		투자액	쉐어(%)
제조가공업	50	175.3	6.7%
호텔·관광업	30	570.4	21.9%
석유가스개발	23	1,420.6	54.6%
광업	13	182.2	7.0%
어업	14	246.3	9.5%
운수	3	2.3	0.1%
농업	1	2.7	0.1%
합계	134	2,599.8	100.0%

- 농업중심, 제조업 미발달

(1) 산업구조

GDP의 구조비율을 명목치로

보면 94년도에는 62.7%가 농림수산업이며, 이어서 상업이 22.3%, 제 3위의 제조업은 불과 6.9%에 지나지 않는다.

미얀마는 GDP의 부분별 구성과 부분별 취업자 구성에 커다란 차이가 없어 최근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드문 패턴을 이루고 있다.(태국에서는 농림업 취업자 비율 60%, 그 GDP비율 12%, 제조업 취업자 비율 12%, 그 GSP 비율 30%).

이는 농업중심산업, 또는 농업의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것보다는 극도로 제조업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 제조업

업종별로는 정미업(精米業)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가공이 85%나 쉐어를 점하고 있다.

이것도 농업의존형의 산업구조로 이러한 정미공장의 대부분이 영세한 가내기업이며, 최근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용제, 플라스틱, 신발 등의 위탁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전기제품제조업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우가 종업원 200명으로 미얀마 국내용 TV를 월 500대정도 만들고 있다.

라. 투자환경

- 호텔·관광업, 석유관련이 중심으로 제조업은 금후의 과제

(1) 투자대상

92년도(탕슈에 SLORC의장 취임) 이후의 개방정책의 정착과 함께 외국투자가 활발해져 매년 증

가 경향에 있어, 93년 3월까지 인가된 안전은 누계 169건, 투자액 누계로는 3,237백만불에 이르고 있다.

투자대상은 호텔·관광업, 석유 관련, 어업이 중심이며, 제조업에의 투자액은 극히 적다.

(2) 각국의 투자분야

- ① 호텔·관광업 : 싱가포르, 태국 등의 화교자본
- ② 석유관련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자본
- ③ 수산업 :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 ④ 제조업 : 싱가포르,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제국, 일본

(3) 제조업의 내역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제품제조(용제포함) 18건, 국내산 원재료 등을 활용한 목재가공 10건, 담배 제조업 4건, 루비 등 보석가공 3건이며, 전기제품제조는 거의 없다.

바. 공업단지

— 소가 한가로히 방목되고 있는 공업단지

공업단지라고 불리우는 것이 양곤 근교에 5개소가 있으나, 수전(水田)지대나 목초지대로 도로, 공업용수, 하수, 전력 등의 인프라가 미정비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공업단지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유일하게 공업단지다운 것이 핀마

<표 5> 밍가라동 공업단지 현황

장 소	• 양곤시가에서 북 20km지점의 밍가라동 지구 • 양곤공항에서 6km, 양곤항으로 부터 23km
개발주체	• 미쓰이 물산과 미얀마 건설성 주택국과의 합작회사
면 적	• 90만 평방미터 • 일반공장구획, 76.1만 평방미터
가 격	• 1평방미터당 US\$ 55(단, 96년 3월 현재 가격) • 토지는 50년 리스권이며, 중도권리의 이전과 담보설정도 가능 • 토지보유용(미얀마 정부에 지불)으로서 연간 1평방미터당 US\$ 0.30

<표 6> 미얀마의 노동임금

	1개월임금(1챗트는 약 1월)
공무원최저	600~700챗트
공무원최고	2,500챗트
대신금	8,000챗트(현물지급이 많음)
공장노동자	1,500~2,500챗트
외자계컴퓨터가 가능한 노동자	100US\$

빈 공업단지로 한국의 대우가 TV 공장과 봉제공장을, 영국의 로스만즈가 담배공장을 싱가포르가 맥주공장을 완성시켜 가동하고 있다. (도로는 울퉁불퉁하여 악명이 높다).

일본의 대형상사 2개사가 공업단지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밍가라동 공업단지(미얀마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공업단지)가 금년 2월에 정식으로 인가되어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준공은 97년 12월을 예정하고 있다.

바. 노동환경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1) 노동력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총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800만

명으로 노동력은 풍부하다.

노동의 질은 기초교육의 보급율이 높기 때문에 소위 비숙련노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며, 또 영어가 통하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저조, 고학력노동자의 해외지향 등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의 확보는 용이하지 않다.

미얀마의 국민은 다툼을 좋아하지 않는 온화한 국민성과 함께 비교적 근면하고 손재주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주재원의 얘기에 의하면, 확실하게 명령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욕을 보이는 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2) 노동임금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법이라는 것이 없고 노동시장 상황이나 해당 노동의 질을 고려하여 통상고용자와의 교섭에 의해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현재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매년 상승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도 베트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예측한다.

사. 금후의 과제

- 인프라 정비에 시간이 필요

금후 미얀마의 경제재건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제조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공업화관련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인프라

영국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50~60년대의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정비한 것이 대부분으로 어느 것이나 빈약하고 또 노후되어 현단계에서는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후의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을 위해서도 전력, 항만, 도로, 통신 등 기간적인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이중환율

「공정환율」과 「시장실세환율」과의 괴리가 20배나 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와 무역 등에 있어 저해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작년 12월에 양곤 시내에 10개소의 FFC(外貨兌換券)교환센터가 오픈해, 현지 통화와 FFC와의 「시장실세환율」에 의한 교환이 가능해져, 주재원들은 환율의 일체화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아. 현지 방문소감

투자처로서의 미얀마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ASEAN제국 및 한국의 기업이 과감히 개척정신을 갖고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출할 지 안할지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진출을 강행할 때이며, 생각은 그 뒤에 하면 된다」고 하는 주재원의 말이 인상에 남았다.

온화하고 근면한 국민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농산물을 갖고 있는 미얀마는 21세기에 있어서의 「동남아시아의 프론티어」가 될 예감을 주었다.

2. 필리핀

가. 일반개황

- 안정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필리핀 경제

필리핀 경제는 라모스정권 이후 93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어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실질경제성장률(GDP)은 94년의 4.3%, 95년의 4.8%에서 '96년에는 더욱 성장한 5.5%가 예측되고 있다.

95년 11, 12월의 대형태풍상륙에 의한 생산활동에의 영향이 있었지만, 외자도입에 의한 생산능력의 강화에 힘입어, 95년의 수출이 174억불로 전년대비 29% 증가를 보여 수입의 신장(24% 증가)을 상회하였다. 특히 주요수출품목인 전자기기, 반도체, 부품이 미국과 일본 등의 견조한 수요에 의해 64% 증가하고 하는 커다란 신장을 보임으로써 1차산품 의존에서 공업제품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해외출가노동자로부터의 송금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95년에는 300만명에 이르러 사상최고인 50억불이 송금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에 공헌하고 있다.

나. 인프라 환경

- 개선되고 있는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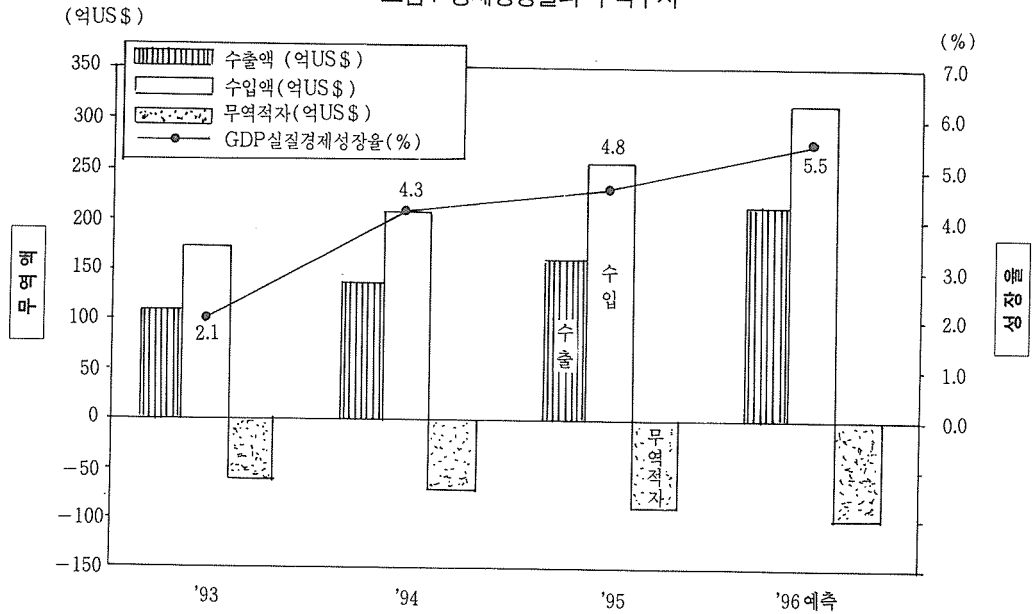
(1) 전력

전력에 대해서는 공급설비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바, 94년 후반부터는 주요도시 및 각 공업단지에는 정전도 전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2) 수도

주요도시와 공업단지에서는 공

그림1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업용수로서 확보되고 있다.

(3) 통신

회선수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110만회선~200회선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 통신의 자유화가 실시되고 있어 휴대전화 등의 무선사업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항만

마닐라항에 대하여 구 해군기지였던 수빅항 개발에서 보듯이 정비·확장을 도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

(5) 도로

마닐라 수도권의 교통정체는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완화책도 없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 간선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언제 완성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정체는 당분간 고민거리로 남게될 것 같다.

(6) 기타

마닐라 수도권에서는 최근 토지의 버블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1m²당의 지가가 94년에 5,000엔, 95년에 8,000엔, 96년에는 12,000엔으로 급등하고 있다.

다. 노동환경

- 양질과 노동과 안정확보

(1) 개황

95년 현재의 인구는 7,00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91~95년의 인구증가율이 2.5%로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인구 2,800만명중 취업인구는 2,600만명으로 추정되어 금

후에도 풍부한 노동력이 기대되지만, 9% 전후의 실업을 외에도 불완전 취업율이 21%에 달해 실업자 문제는 심각하다.

(2) 노동임금

일본계 기업 각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최저임금제도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마닐라 수도권을 예로들면 「161페소×110%×26일」로 약 4,600페소의 월급이 된다. 이에 더하여 년 1회 1개월분의 상여가 있고, 그외에 식대, 보험료 등의 보조지급이 있으나, 통근비와 숙소는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3) 기타

필리핀은 영어권으로 현지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표 1〉 최저임금과 직종별임금

최저임금(일급)		월급(마닐라수도권)	
마닐라수도권	161페소	노동자	4,000~5,000페소
가비테 지역	155페소	사무노동자	4,500~5,500페소
바탕 지역	141페소	엔지니어	8,000~10,000페소
세브지역	138페소	매니저	12,000페소이상 (평균30,000페소)

(96년 6월 현재)

적으며, 교육수준도 높아 개인능력도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공장의 노동자는 물론 반장급이나 엔지니어에 있어서도 질 좋은 노동력을 비교적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다.

라. 투자환경

—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과 과제가 남아 있는 세계개혁

(1) 외자정책

라모스정권은 경제개혁의 기동으로써 이하와 같은 외자규제의 완화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외자도입을 위한 환경조성에 적극적이다.

① 94년에 인프라 정비 촉진을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법을 개정하여 발전소, 댐, 공항, 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② 원칙적으로, 40% 이하였던 외자출자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수입, 도매업, 여행대리점, 호텔, 보험업 등에의 외자 100% 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③ 통신사업에서는 휴대전화사업에의 외자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은행업에 대해서도 지점의 개설 및 100% 자회사 설립을 인가하고 있다.

④ 95년 9월에 제정한 광업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투자액 2,500만 ~ 1억불 등)에 근거해 외자 100% 출자를 인가하고 있다.

(2) 투자우대정책 「BOI(투자위원회)우대대상기업」

① 법인소득세면제, 신규프로젝트나 벤처기업은 6년간(일반기업은 4년) 면제

② 기계, 설비, 부품의 수입관세면제(96년 12월까지)

③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

④ 수출품에 사용되는 수입원재료 및 반제품의 관세면제

⑤ 수출입에 대한 통관수속의 간소화

⑥ BOI 및 관세국의 규정에 의거, 보세창고 이용 가능

⑦ 외국인 고용을 등록후 5년간 인정하며, 그 후도 연장가능

⑧ 위탁설비의 무제한 이용
수출기업은 BOI의 우대대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에 준해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95년 6월 필리핀 경제구청(PEZA)이 창설되어 구 수출가공구청(EPZA)를 대신해 필리

핀 전국에 40개소의 특별경제구(ecozone)의 개발, 운영, 관리를 행하고 있다. (단, 수빅과 클라크는 독자기관이 운영)

(3) 투자동향

BOI(투자위원회)인가 배이스를 보면,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94년의 23.4억불에서 95년에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들어 16.7억불로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수출가공구(PEZA)에의 투자는 17억불로 전년대비 5배나 늘어났다. 국별로는 95년의 일본의 투자액이 12억불로 급증하여(전년대비 6배)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대상중 전자분야가 70% 이상을 점하는 등 95년의 총투자액(BOI+PEZA)은 34억불(전년대비 126%)에 달하고 있다. 또 정부는 투자유치존을 마닐라 수도권과 카비테, 바탕, 세브 지역에서 기타 주변지역(미라기나, 루인다, 브라강, 바기오)등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나 인프라 정비 등에 있어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4) 세계

① 96년 1월 1일부터 확대부가가치세(EVAT)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88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확대 VAT),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간 80~120억 페소(세금

〈표 2〉 필리핀에의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전자관련투자(92년 이후)

년	일본으로부터의 주요투자		미국으로부터의 주요투자	
	기업명	투자사업	기업명	투자사업
'92	송하전기	에어콘		
	송한통신	FDD		
	주우전장	와이어하네스		
'93	유니텐	통신기	Motorola	반도체
	름	반도체	American Microsystem	반도체
'94	미즈미	HDD	Intel	반도체
	일입	와이어 하네스	Sunward Technology	자기헤드
	실기총업	자기헤드	Amkor/Anam Pilipinas	반도체
			Amerton	반도체
			TI	반도체
'95	부사통	HDD	G.M	자동차·동부품
	동지	HDD, CD-ROM		
	쌍섭전자	전자부품		
	부토전기	반도체		
	일본전장	계기	대만 Acer PC '96	
	세이코엡슨	프린터	태국 UCOM 휴대전화 '96	
	송하전기	복사기		
	삼양	반도체		
	카시오	휴대전화		

수입의 3~4%)의 과세수입이 예상된다.

② 도입이 용이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부터 세계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고소득자, 기업(개발, 지주 등)으로부터의 징세강화와 재산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세금부족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의 수립이 어려워 금후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③ 법인세를 순이익(최종이익)의 3.5% (네트인컴 TAX)에서 부가가치의 5% (글로스 인컴 TAX)로 변경할 움직임이 있어, 특히 일본계 기업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전자공업 동향

- MDD생산의 일대 기지로

(1)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① 일본계 가전 메이커 2개사가 필리핀 국내 수요를 대상으로 C-TV, 가라오케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TV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장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보급율은 27~28% 정도이다.

② 수출기로서 카 스테레오, 코드레스, FDD, HDD가 비교적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HDD에 있어서는 일본의 대형 메이커가 진출해 합계로 세계 생산의 25%를 목표로 일대 생산기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 전자부품의 생산동향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부터의 집중구매로 조달하고 있으며, 현지조달은 판금이나 수지가공제품의 주체를 이루고 있다.

한 세트 메이커의 조달사례를 소개하면, 필리핀 내 7%, 싱가포르 IPO 18%, 대만 24%, 일본 51% (반도체가 중심임)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계 부품메이커의 진출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바. 필리핀의 매력과 과제

- 우위성을 배경으로 한 금후의 경제정책의 열쇠

(1) 95년 5월에 중간선거가 행해지고 결과는 상하원 모두 여당 압승으로 끝남으로써 4년째 접어든

라모스 정권은 더욱 튼튼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경제정책으로써는 계속 수출증강과 투자우대정책을 축으로 외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견조한 성장이 기대된다.

(3) 또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의 투자대상국과의 경쟁의식이 또다시 글로벌 선수권으로 등장해, ASEAN의 지리적 우위성 및 유리한 노동력의 양과 질을 타 정책과 연결시켜 얼마나 유효한 결정타를 날려 패권의 주도권을 쥘지 금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지리적 환경, 노동환경, 투자환경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금후의 커다란 포인트는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

(5) 금후의 키워드는 눈앞의 정책보다도 중장기적인 인플레이 억제와 세계수입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및 외자도입을 위한 명확한 비전의 추진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96년의 APEC의 장국으로 라모스 대통령의 국제무대에서의 지도력이 시험받는 해이며, 또 98년은 차기 대통령선거로 국민의 평가가 내려지는 해이기도 하다.

3. 말레이시아

가. 일반개황

- 고성장 계속

제6차 5개년 계획(91~95)에서는 GDP연평균 8.7%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제7차 5개년 계획(96~2001)에서도 8%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95년의 한해동안에는 9.6%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96년에도 9.5%의 신장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커몬웰즈 '98」을 향해, 신공항과 철도, 경기장 등 대형 인프라의 정비가 급피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8년까지는 높은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공업의 동향

(1) 주요기기의 생산동향

전자공업은 임금상승과 노동자 부족(현재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중)에 의해 노동집약적인 생산은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경제정책도 하이테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트 메이커는 생산품목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기기별로는 AV의 신장은 둔화하고 PC와 OA 관련 상품의 신장이 예측된다.

① 칼라 TV는 급속한 확대를 보여 왔으나, 각 지역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장에 들어가고 있으며, VTR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생산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환이 어려운 메이커는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② 오디오는 라디오캐세트의 부가가치가 없어서 중국지역으로 재이전하고 스테레오로 전환하고 있으나, 스테레오의 부가가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③ 전화기관계는 코드레스 전화가 급속히 신장해 왔으나, 세트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에 의해 생산의 재이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예측은 대단히 불안정하다.

일반전화기는 더욱 재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④ PC 및 주변기기는 하이테크화 추진정책과도 맞아 떨어져 순조로운 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 FDD는 부가가치가 없어서 재이전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2) 외자계 기업의 제조투자 허가 건수의 안정

〈표 1〉

	제6차('91~'95)		제7차('96~2000)
	계 획	실 적	계 획
GDP	8.1%	8.7%	8%
GNP/인	9.947M\$	9,786M\$	14,788M\$
인플레이율	5%	4%	
실업율	2.8%	2.8%	2.8%(완전고용)

외자계 기업의 년도별 투자허가 건수는 일본계, 싱가포르계가 94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생산의 안정적인 신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3) GSP졸업에는 이미 대응

세트메이커는 예상보다 빨리 GSP졸업이 찾아 왔다고 생각하지만 쇼크는 적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NAFTA,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메이커가 많아 GSP졸업에의 대응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부품메이커는 물류를 중심으로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근접국에의 재이전

생산의 재이전은 그림 12와 같다.

(5) 주요 부품 생산 동향

① 기기적부품, 노동집약적부품은 안정기를 거쳐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설비산업용 부품이나 특수부품은 아직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트가 고부가가치화와 하이테크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품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② 칩화에의 이행

칩수요의 증대에 따라 저항기

그림 1 칼라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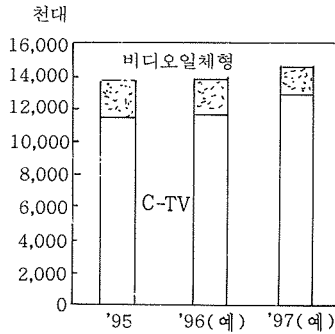


그림 2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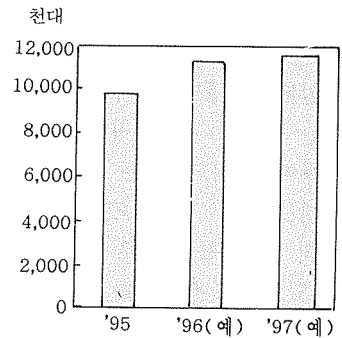


그림 3 오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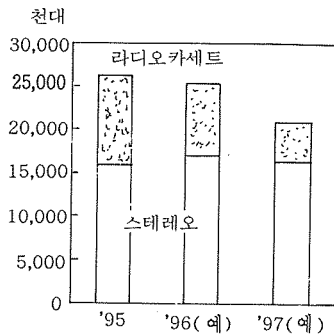


그림 4 스테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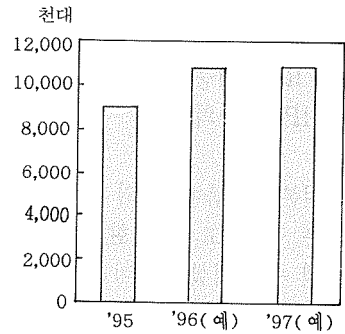


그림 5 코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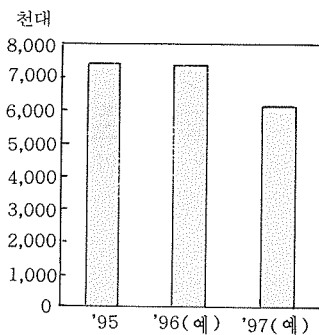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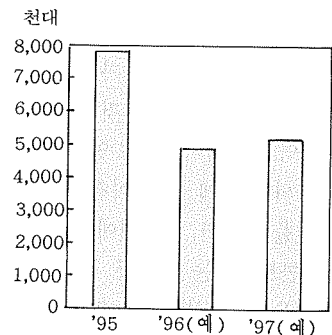


그림 6 일반전화기



및 세라믹콘덴서의 칩화가 진행되고 있다.

(6) 일본계 부품 메이커의 경합관계
일본계 부품메이커의 경합은 전에는 일본계 부품메이커들 간에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대만과 한국계 기업이 그 중심으로 20~30%의 가격차를 무기로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화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인도의 부품은 대만이나 한국의 그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R&D기능 강화와 IPO기능의 연동

일본계 부품메이커의 R & D기능은 강화되고 있어 현지 설계의 모델 수가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요소개발과 공통사시는 일본에서 행하지만, 그 외의 것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품면에서 현지설계 플라쉬는 ① 부품원수의 삭감 ② 일본계 부품의 삭감 ③ 품질과 신뢰성 기준의 수정(일본계 이외 부품의 채용촉진)등으로 저코스트를 구체화해 가고 있다.

또한 여기서 설계된 것이 ASEAN지역으로 재이전되고 있어 R&D기능의 충실에 따라 이전처에서의 생산을 기술면, 부품면에서 지원하고 컨트롤하는 「공장 IPO」적인 기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라. 금후의 과제

그림 7 PC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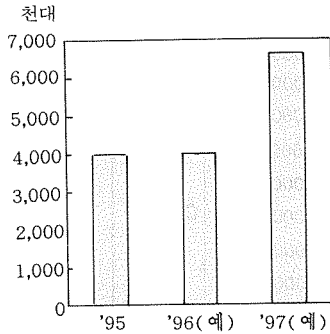


그림 8 외부기억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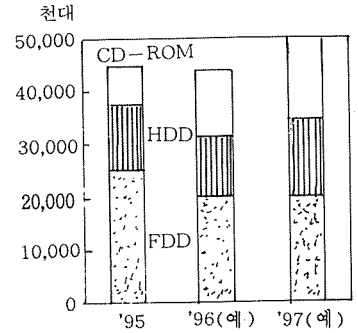


그림 9 칼라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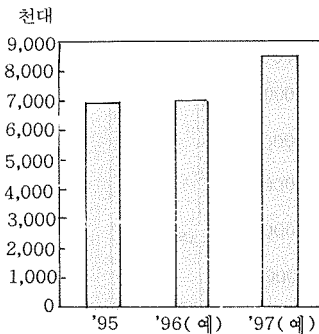


그림 10 키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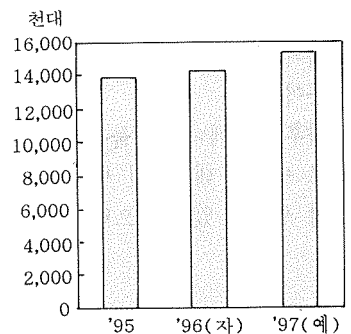


그림 11 전자/전자제조투자허가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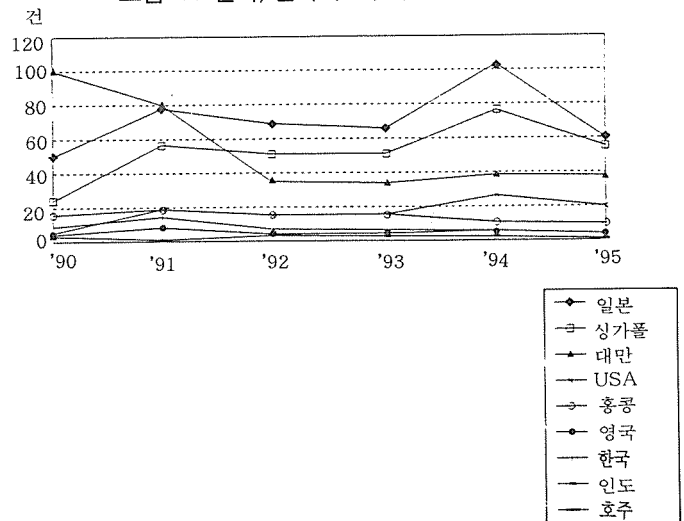


그림 12 생산재이전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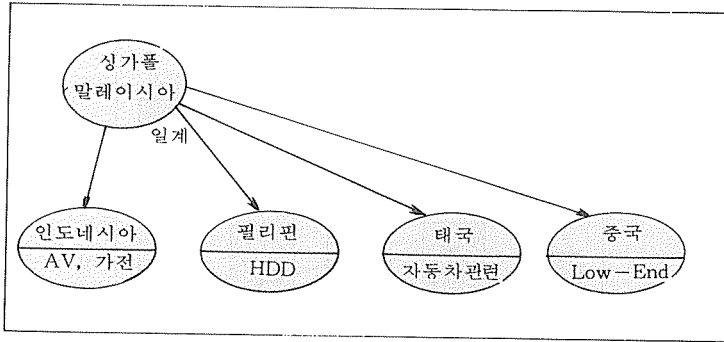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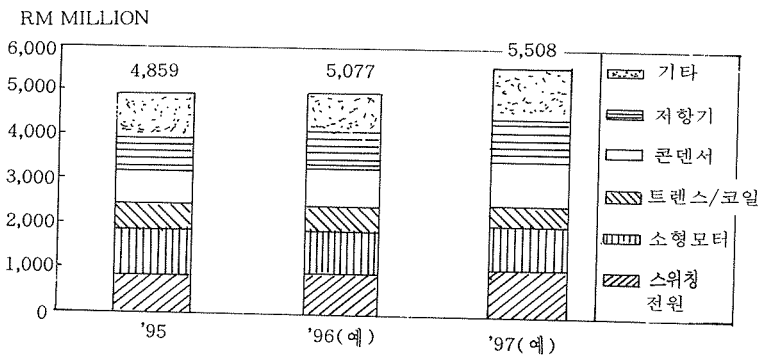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부품 생산동향



(1) 일본계 세트 메이커의 R & D 기능이 착실히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품메이커도 R & D기능의 강화에 대한 대응이 바람직하다.

(2) 일본계 세트 생산의 재이전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전 내용은 일본만이 콘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측에서의 콘트롤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와 일본 그리고 재이전처를 포함한 글로벌한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싱가포르

가. 일반개황

(1) 2자리 성장에서 1자리 성장으로 93년에 10.4%, 94년에 10.2%로 2년 연속 2자리 성장을 기록한 싱가포르경제는 95년 8.9%, 96년(예상) 8.0%로 1자리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주요선진국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GNP도 95년에 24,000불을 넘어섰고, 96년에는 27,000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의 미국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년초에 선진국에의 진입을 세계에 선언한 바 있어 자신감에 차 있는 듯 하다.

(2) 제조업 구조전환에 박차

싱가포르의 GDP전체중에서 제조업이 점하는 비율은 '95년에 약 28%로 94년 이후 감소경향에 있으며, 96년에는 약 9.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생산거점의 국외 이전이 더욱 빨리 가속화되고 있어 그 비율의 저하를 면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95년의 제조업투자가 68억불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PC 및 PC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한 제품이 신장에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금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주도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현재화(顯在化)해, 말레이시아를 의식한 유치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OHQ(오퍼레이셔널 헤드쿼터 : 地域本社制)기능의 확충

(1) IPO기능

지역본사제 기능의 일부로써 싱가포르의 고도의 인프라와 세제면의 우대조치를 초대한 이용하려는 움

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 사업소별로 IPO기능의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는 타국에 대해 우위성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V기기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재이전이 실시되면 싱가포르 IPO는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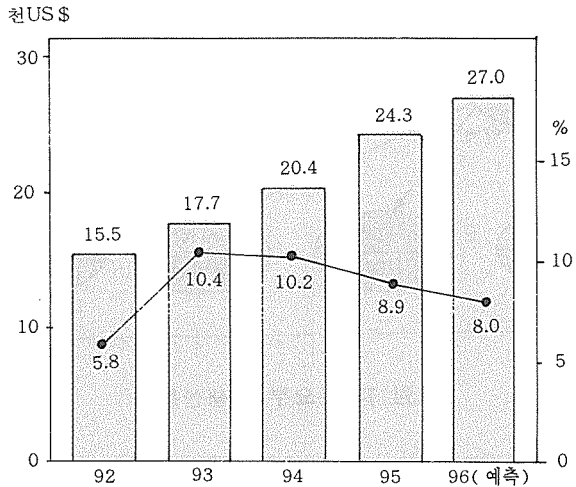
(2) R & D기능

중국에 대한 홍콩의 IPO는 리프레이스먼트가 중심활동이었으나, 싱가폴은 본격적인 개발형으로 이행해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현지 개발설계의 포인트로서는

- ① 일본계 부품의 삭감
- ② 부품원수의 삭감
- ③ 품질·신뢰성기준의 수정(그레이드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결정함)을 중심테마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해질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P의 추이



다. 전자, 전기부품업계의 금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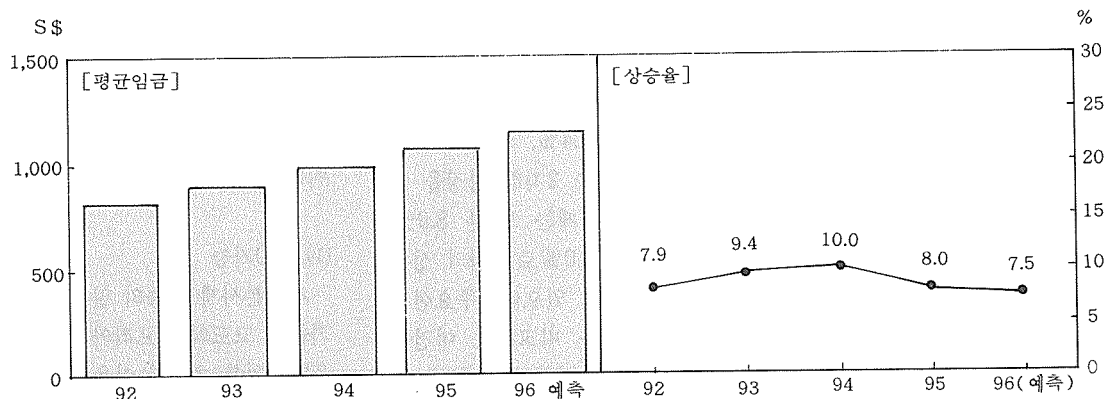
(1) 고부가가치제품에의 이행

싱가폴정부로서는 제조업은 GDP의 25% 이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1인당 생산성은 200

명 수준의 기업에서 3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형으로의 이행이 시급하다.

(2) 부품업계의 R & D기능강화 세트 메이커의 R & D와 IPO

그림 2 노동자의평균임금과 그상승률



강화에 의해 현지인정부품의 확대와 일본계 부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부품업체로서는 현지에 R & D기능의 설치 및 기술자의 파견과 증원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현장에 있어서의 기술자간의 협의와 영업전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5. 인도네시아

가. 일반개황

1994년의 정령(政令) 20호에 의한 외자규제 완화정책을 전기로 수출지향형 산업에의 중점투자를 촉진시켜온 수하르트 정권은 최근 2~3년간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작년에는 국민 1인당 GNP가 1천불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는 바, 정책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으로 중국에게 질 수 없다고 하는 위기감이었다.

(1) 규제완화

정령 20호의 외자규제완화 포인트는

① 외자 100%라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② 「장애에는 현지측 자본을 50%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의 철폐

③ 「최저 투자액 1백만불」을 「사업규모에 대응해 인가」로 변경

④ 산업기반 관련부문에 외자도입을 인정한다고 하는 4가지이다.

금년에도 1월말과 6월 초순에 경제의 안정성장과 국가의 내성(耐性)을 유지하면서 지속성있는 일련의 규제완화정책과 탈관료주의 정책을 「수입」, 「수출」, 「투자환경」의 3가지 분야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월말의 '96년 정령 2호는 외국투자회사가 보세지구의 제조회사 혹은 수출지향 생산공장구(EPTE)의 제조회사를 위해 기계·공장설비·부품·원료의 수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월 초순의 규제완화책 주요포인트는 -

- ① 관세인하 스케줄을 실질적으로 1년 앞당김
- ② 수입 라이선스의 간소화
- ③ 수출진흥을 위해, 선적전 검사의 전면폐지
- ④ 보세공업단지 및 보세창고의 경영을 민간에 개방
- ⑤ 외자 제조업의 수입업무 완

화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03년까지 ASEAN역내 상호간에 관세를 5% 이하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국민차 문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민차계획이 일본·EU·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WTO에 제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민차계획은 현지자본 100%와 3년제의 부품국산화를 6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65%의 부품수입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2월말의 발표와 동시에 수하르트 대통령의 3남이 한국자동차 메이커와 제휴해 설립한 회사가 국민차 메이커로 인정되었다. 그후 수하르트 대통령의

그림 2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임금(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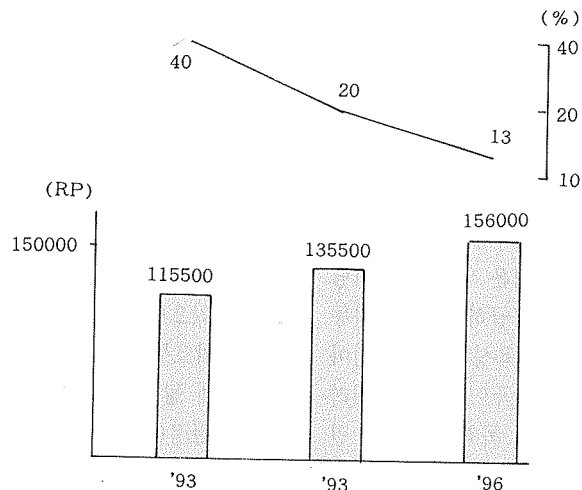


그림 3 주요기기생산상황(A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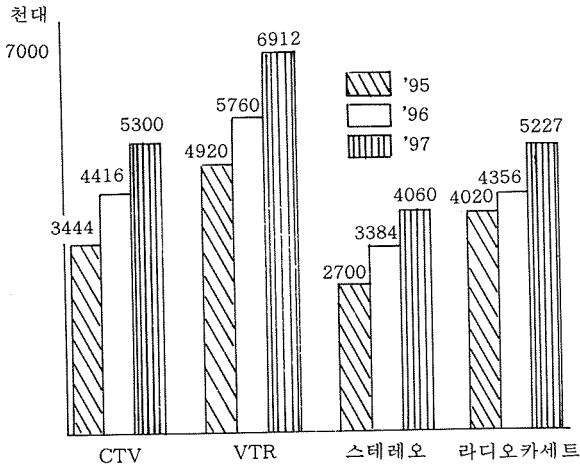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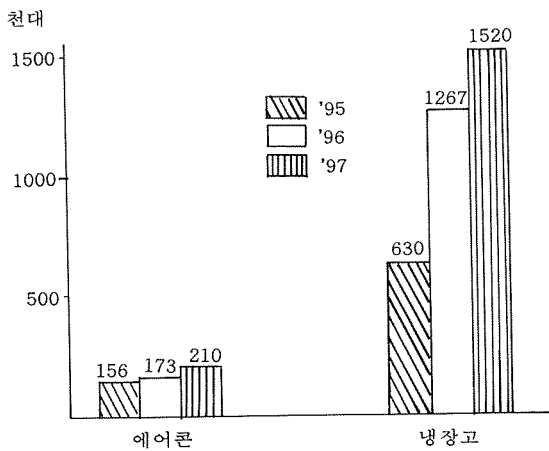


그림 4 주요기기생산상황(가전)



차남도 다른 한국메이커와 결탁해 국민차 구상에 뛰어드는 등 복잡한 대립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본래 이 계획은 국민에게 저렴한 승용차를 공급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해 인도네시아를 자동차 수출국으로 변신시키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분야의 국

내산업의 강화책을 외자도입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 제품수출과 관련된 전자부품산업과 지원산업의 이전을 해외기업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의 국민차문제가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게 될지도 모른다.

③ 정정(政情)

수하르트 정권은 이미 6기 28

년의 장기정권의 길로 접어들어 98년의 대통령 선거에는 고령으로 인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 장기간 안정되었던 정국도 일시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당수의 해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항례의 정치 계절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우기시의 홍수 등 인프라정비가 시급하나, 자카르타 재팬 클럽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년 2회 정도 회합을 열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요망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그룹과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보교환 채널에 있어서의 대응은 대단히 전향적인 느낌이다.

④ 노동환경

임금수준은 매년 2자리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 95년에는 전년대비 20%, 96년에도 13% 인상되었다.

아직 타국과 비교하면 낮은 임금이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용인될 것인지 인프라와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와 중간관리층의 부족이 산업육성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하에 94년부터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6년간에서 중학교까지 9년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15년 계획으로 스타트하고 있다.

나.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투자 현황

(1) C-TV

작년과 비교해 28%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일본계 대형 메이커와 싱가포르 부터 생산의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해 지난 6월부터 생산을 개시하는 등 수출을 전제로한 대규모 생산공장이 금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VTR

한국의 대형 메이커가 대규모 VTR공장을 신설하는 등 금년도 전년대비 17%의 신장이 기대된다.

(3) 오디오

세계적인 오디오의 부진상황속에서도 인도네시아만은 2자리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Low-End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부터의 2차 이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다. 대규모 공업단지

자카르타 동부의 부가시 지구에 일본 대형상사의 후원에 대한 등

자카르타 공업단지, 세계 2,100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조성이 행해지고 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이내라고 하는 메리트도 있으나, 그 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산업기지로써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라. 서포팅 인더스트리의 상황

기구부품·수지성형품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계 기업이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일반전자부품은 거의 없고, 주요부품은 싱가포르 IPO에 의존하고 있다.

금후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세트메이커의 직접구매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트메이커에서는 전자부품의 공장진출을 강하게 요망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시장규모로는 진출 메리트를 찾아내기가 어려웠지만, 인도네시아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수출기지로써도 생각한다면 이제는 진출전략을 수정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 특기사항(特記事項)

한국 재벌계의 국제적인 대규모 기업진출이 대단히 눈에 띈다.

대형 전자메커가 36만평 부지에 2만~3만평의 건물을 일거에 5동이나 건설하고 있는바, 투자액은 500억엔을 넘는다고 한다.

또한, 국민차 구상의 파트너도 어느 것이나 한국메이커로 정부탑 레벨(Top Level)간의 강한 결착을 엿보게 한다.

최근의 외국인 등록인 수에 있어서도 한국인이 11,670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인 9,440명, 대만인 5,694명 순이다.

최근의 투자경향으로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일본계기업이 싱가포르 투자이전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는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기능을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자회사에 이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